

# 업계소식

## BOILER ENGINEERING

### 귀뚜라미, 7년연속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40여년의 기술노하우로 560여개 지적 재산권 인정

귀뚜라미보일러(대표 이성우)는 최근 한국표준협회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05년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7년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1월 16일 과천 기술표준원 1층 중강당에서 열렸다.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상은 매년 지속적인 품질혁신으로 품질경쟁력을 실현시킨 우수 기업체를 발굴하는 제도로 국가 경쟁력 증진차원에서 홍보와 각종 지원혜택을 제공한다.

이번에 귀뚜라미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배경은 40여년의 기술노하우로 560여개 지적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을 만큼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웰빙, 편리성, 안전성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주었다고 판단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연소방식에 있어서 기존 보일러와 달리 내려가면서 한번, 올라가면서 또 한번 데워주는 거꾸로 타는 가스·기름보일러 시스템을 이용해 연료비를 절감하면서 환경 친화적 보일러가 강조되면서 소비자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해 고유가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연료절약형 보일러인 전기, 화목, 갈탄, 연탄 등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개발과 홈네트워크 시스템, 무선각방제어 등 첨단 기능을 접목한 보일러를 개발, 공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올해 냉방사업에 본격 진출하면서 냉난방 전문기업으로 도약도 준비중이다.

### 대성셀틱 콘덴싱보일러 산지부 장관상 받아 에너지절약축진대회서

대성그룹(www.celtic.co.kr 회장 김영대) 계열사인



대성썬텍가스보일러가 『제27회 에너지절약 촉진대회』에서 에너지 절약형 보일러인 콘덴싱보일러 국산화를 통해 범국가적 에너지절약을 실현한 공로로 산업자원부장관상을 받았다.

이날 대성썬텍 고봉식 대표는 "콘덴싱 보일러 기술의 국산화로 연료비 절감은 물론 교토의정서에 대비한 환경문제에도 일조를 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선진기술의 국산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을 받은 콘덴싱 보일러 e-best(이베스트)는 열교환기에서 열을 흡수한 후 배기가스의 폐열을 2차 열교환기를 통해 한번 더 흡수해 열효율을 극대화 시킨 보일러로 일반보일러 대비 연간 15%~35%의 에너지 절약을 실현했으며, 산성의 응축수에도 잘 견딜 수 있으면서도 내식성이 강한 '알루미늄 하이핀'을 사용해 내구성, 내식성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내부에는 동파이프를 삽입을 통해 열효율을 더욱 효과적으로 증대했다.

뿐만아니라 콘덴싱 보일러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을 순수 국내 기술로 국산화에 성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제거함으로 소비자가 그 동안 에너지 절약형 보일러로 알고는 있지만 고가로 인해 접하기 힘들었던 콘덴싱 보일러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진보된 기술로 대성썬텍 e-best는 이미 유럽5개국(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과 중국, 그리고 국내의 특허출원을 완료한 상태다.

## 린나이, 동절기맞이 난방기기 신제품 선보여 가스캐비닛히터 · 전기온풍기 업그레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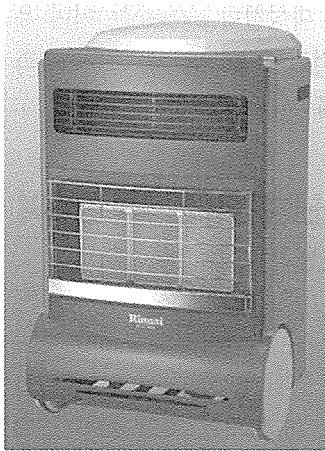
린나이코리아(대표 강성모 [www.rinnai.co.kr](http://www.rinnai.co.kr))가 동절기를 맞아 전기 온풍기와 이동형 가스 캐비닛히터를 새롭게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전기 온풍기와 가스 캐비닛히터는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 실내에서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안전 기능을 강화해 제품이 넘어지거나 산소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을 멈춰 화재의 위험을 없앴으며, 안전을 위해 연속방전 직접점화 방식을 적용했다.

신제품 전기 온풍기(REH-221P)는 고효율 세라믹 PTC를 탑재한 2.8kW의 고열량 열풍히터를 사용했으며 6중 필터를 채용, 냄새와 연기가 없는 쾌적한 공기청정 열풍을 방출하는 웰빙 온풍기로, 공기청정기로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하나의 제품으로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 편리성을 극대화 했다.

온풍을 강, 중, 약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으며, 풍향 조절을 좌, 우로도 할 수 있어 공간온도를 고르게 높일 수 있고, 예약 타이머 기능을 추가, 취침 전 미리 예약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무선 리모콘으로 원거리



에서도 편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중 과열방지장치(바이메탈, 온도퓨즈), 과전류 보호장치(전류퓨즈), 전도시 전원차단의 안전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대형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 한눈에 동작 상태를 파악 할 수도 있다.

를 파악 할 수도 있다.

이동형 가스 캐비닛 히터(RCH-705F)는 팬을 부착해 온풍기로서 사용할 수 있는 알뜰형 히터로 고효율 세라믹 원적외선 버너를 채용해 열효율이 높았다. 산소결핍 방지, 넘어졌을 시 꺼짐, 가스차단의 3중 안전장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난방을 할 수 있다.

린나이코리아 김범석 홍보팀장은 “겨울철 효율적인 난방을 위해서는 보일러와 실내 난방기구를 병행해 사용하는 것이 연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린나이코리아는 반신욕 보일러, 인터넷 보일러 등 각종 웰빙 보일러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난방기구를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롯데기공·린나이 '대한민국 가치창조 대상' 업계 최초, 기업가치 극대화 노력 빛나

롯데기공과 린나이코리아가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영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을 출시해 '2005 대한민국 가치창조 기업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미래매니지먼트 연구원



이 주관한 대한민국 가치창조 기업 대상은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기업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경영전략에 성공한 기업과 합리적인 조직구조 시스템을 바탕으로 성과급에 대한 가치변화 등 직원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활용해 기업의 가치를 크게 향상시킨 기업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롯데기공은 '고객만족을 통한 사회기여'라는 경영방침아래 환경설비 시공과 생활편의시설 건설, 가스보일러, 자판기, 쇼케이스, HRV시스템, GHP생산등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가꿔가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1987년 국내 최초로 KS마크를 취득과 함께 SAUNIER DUVAL(社)와의 가스보일러 기술 제휴를 통해 보일러 제조기술의 선진화에 앞장섰으며 '고객만족을 통한 사회기여'라는 품질 방침과 고객 지향적인 상품개발, 신뢰성이 보장된 제품생산 등 신속하고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점이 높이 평가됐다.

린나이코리아는 고품격 웰빙 보일러를 선보여 소비자의 생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기업가치를 창조하고 보일러 업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1도씩 온도를 조절할수 있는 반신욕 가스보일

리와 집 밖에서도 조작이 가능한 인터넷 가스보일러는 기존의 온수와 난방 기능만 담당하던 보일러를 현대인의 신생활 패턴에 맞춰 웰빙 기능을 추가해 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린나이측은 밝혔다.

린나이코리아 홍보팀 김범석 팀장은 “린나이코리아는 고객이 원하는 차별화된 기술을 제공해 보일러의 핵심가치를 창조해냈다”고 설명하며 “30년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종 웰빙 기능을 가진 보일러를 선보이고 있어 향후 더욱 다양한 보일러를 생산, 보급하며 보일러 시장의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동, 업계 최초 2천만불 수출 42회 무역의 날에 철탑산업훈장 받아

경동보일러가 업계 최초로 '2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경동보일러(대표 김철병)는 30일 '제42회 무역의 날' 시상식에서 보일러 업계 최초로 2000만불 수출의 탑과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8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콘덴싱보일러를 생산·판매해 18년 연속 1위를 기록한 점이 인정돼 이같은 상을 수상하게 됐다.

해외영업부 이성삼 부장은 “세계시장에서 경동보일러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계기는 콘덴싱 보일러를 아시아 최초로 생산한 기술력에 있다”며 “에너지절감과 환경성을 중시하는 유럽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총량제와 맞물려 정책적으로 콘덴싱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수출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동보일러는 지난 1987년 콘덴싱 보일러의



우수성을 간파하고 네덜란드 네피트사로부터 기술도입을 통해 콘덴싱 기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현재 콘덴싱 보일러의 핵심부품인 특수열교환기는 경동에서 역수출을 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태다.

특히 올해 초에는 아시아 최초로 유럽 열효율 최고등급인 4-Star를 획득하며 콘덴싱 보일러 분야에서 국내 최고임을 다시 확인받았다고 경동측은 밝혔다.

수출선도 다원화하고 있다. 경동은 'SATURN(새턴)', '복래가(福來家)' 등의 다양한 브랜드로 현지시장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북경경동보일러유한공사의 류동주임은 “현재 중국에서 바닥난방의 온돌문화가 형성되고 있고 각 방별 제어 등 홈네트워크 기능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다”며 “보일러와 홈네트워크 제품군이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귀뚜라미·린나이 KS제품 품질 우수업체 한국표준협회 주최

귀뚜라미보일러와 린나이코리아가 '2005년 KS 제품 품질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품질경영학회가 후원하는 '2005 KS 제품 품질 우수기업'에 귀뚜라미보일러가 가스보일러 및 기름보일러에, 린나이코리아가 가스온수보일러에 각각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수여된상은 한국표준협회와 한국품질경영학회 지수연구회가 제품품질의 특성과 고객요구 품질요소를 반영해 공동 개발한 측정모델로 해당 제품을 실제 사용해 본 소비자 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제품의 품질우수성을 측정해 발표하는 종합지표다.

조사방법은 기업부문과 소비자부문등 2개로 이뤄졌으며 조사기간은 10월 17일부터 11월 10까지 만 20세에서 60세미만의 성인남녀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지역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로 제품의 시장 특성을 반영한 할당 추출법을 이용했으며 자료 수집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 면접조사로 공정성을 기했다.

귀뚜라미보일러측은 대표제품인 거꾸로 Ⅱ와 거꾸로 타는 기름보일러가 내려갈 때 한번 올라갈때 또한 번 데워주는 작용으로 효율이 좋고 연료비 절약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점이 좋은점수를 얻는데 큰 작용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거꾸로타는 기름보일러의 경우 업계최초로 고효율 인증을 획득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고 있는상태로 귀뚜라미측은 향후 더욱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보답할 예정이다.

린나이코리아의 인터넷 가스보일러 (R300)는 인터넷을 통해 외부에서도 보일러를 자유자재로 조작할수 있는 편리한 조작과 가스비를 절약해주는 기술인 전자동 비례제어시스템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였다고 린나이측은 밝혔다.

## 가스안전공, 대한민국고객만족경영대상 수상 2004년 특별상에 이어 2년연속 수상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달영)는 지난 11월 15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5년 제 13회 대한민국고객만족경영대상'에서 사회가치혁신부문 '대상'과 개인부문의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고객만족경영대상'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고 고객지향 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기업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품격의 가스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고객만족경영을 추진해온 2004년 고객서비스혁신부문 최우수상 수상에 이은 2년 연속 수



상으로 공공행정 분야의 대표적 CS 선도기관으로써 확고한 자리매김 하게됐다.

특히, 이번 수상은 공사의 전사적인 고객만족경영 시스템의 확립 뿐만아니라 IT 기반 검사체계 구축, 기술검토 처리프로세스 개선, 자발적협약 및 우수 판매업소 인증마크제도 등 혁신을 통한 고객가치창조의 핵심 경영원칙하에 추진되어온 다양한 고객지향적 업무 프로세스 개선활동 및 성과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부문의「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한 박달영사장은 2003년 사장으로 부임이후 민간기업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가스안전 서비스기업'으로의 변화를 위해 그간 산하기관에서 등한시 해오던 고객만족경영을 경영의 주요한 방침으로 설정하고 고객지원처 신설, 고객만족경영 기본인프라를 구축하는등 전사적 차원에서 고객만족경영을 강력히 추진해온 CS리더십이 높게 평가받아「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

박달영사장은 “2년 연속 고객만족대상 수상을 통해 얻은 고객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고객과 관련업계로부터 더욱 사랑과 인정을 받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대국민 가스안전 관리업무를 완수하는 고객감동을 선도하는 가스안전 서비스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대성셀틱, 열지키미 페스티벌 성료 60만명 참여...자동차 등 경품 푸짐

대성그룹(회장 김영대) 계열사인 대성셀틱가스보일러가 실시한 '대성셀틱 25주년 기념 열지키미 페스티벌'이 60만고객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대성셀틱이 국내 가스보일러가 등장한지 25주년을 기념해 전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절차 없이 직접 응모를 받았으며, 45일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60만명의 고객이 참여해 대성황을 이뤘다

대성셀틱은 추첨을 통해 1등에 뽑힌 부산광역시 김중완씨에게는 프라이드 자동차를 전달했으며 총344명을 선정해 드럼세탁기, 공기청정기 연수기 스마트자전거 스타일링소기 대성 헨켈 세제 등 푸짐한 경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를 진행한 신성수 팀장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보일러에도 에너지 효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였다. 앞으로도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대성셀틱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첨자는 대성셀틱 홈페이지(www.celti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일러 제조사, 새로운 판매 활로 개척 귀뚜라미, 홈쇼핑 통해 2천여대 판매



최근 홈쇼핑을 시청하다보면 보일러 판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



는 보일러업계가 침체된 보일러 시장을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돌파구로 홈쇼핑 시장을 선택했기 때



### 샵린나이, 린나이코리아서 분사 여성 전문 쇼핑을 특화 위해 쇼핑 전문업체로

문으로, 그 효과 또한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귀뚜라미보일러는 지난 9월말부터 7차례 홈쇼핑 방송을 통해 총 2000여대가 설치를 마치며, 단기간에 쾌속매출성장을 기록했다.

월동준비 기획상품으로 판매해 효율이 떨어지고 애프터서비스 부담이 큰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신형 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점을 강조해 방송 초기 단 2회 방영으로 7억원의 매출을 올려 대박을 터트렸다. '거꾸로 II 골드' 제품을 10개월 무이자로 판매됐다.

최근 우리홈쇼핑과 GS홈쇼핑에 2회에 걸쳐 방송 시작한 경동보일러도 총 720대가 설치완료하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특히 홈쇼핑 전용 모델로 시중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한 '콘텐츠 프리미엄 보일러'를 선보여, 흑시모를 대리점과의 마찰을 방지했다.

보일러 제조사들이 홈쇼핑시장에서 의외의 성과를 보이는데 대해 경쟁 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다.

특히 주부들이 즐겨보는 홈쇼핑을 통해 1시간 남짓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업체가 많지만, 홈쇼핑업체들은 제품판매에 따르는 이익금 분배 때문에 초기 광고비조로 회당 거액의 돈을 요구되어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의 입장에서는 대담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하는 곳도 있다.

샵린나이(www.shoprinnai.com)가 지난 11월 1일부터 독립나이에스엠(주)(RinnaiSM(주))로 독립해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여, 여성을 주요고객으로 하는 전문 쇼핑몰업체로 거듭나게 됐다.

지난 4월 새롭게 시작한 샵린나이는 오픈 6개월 만에 종합 쇼핑몰 순위 26위를 기록하며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10월 샵린나이의 매출은 개점 초기에 비해 7배, 9월 대비 2.5배로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샵린나이측은 이처럼 짧은 기간안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 소비자인 여성을 겨냥한 다각적인 마케팅 덕분으로 분석하며, 요일별 특정 제품을 노마진으로 판매하는 요일샵, 다이아몬드 반지 이벤트, 미스/미시 컨테스트 등 젊은 여성들을 위한 이색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현재 샵린나이는 회원가입 고객과 구매고객에게 영화 시사회, 무료 사진인화, 집청소 대행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코리아닷컴(www.korea.com)에서 제공하는 벨소리와 개인 영화와 어린이 교육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무한대준 쿠폰도 무료로 증정하고 있다.

또한 12월부터 해외구매 대행 서비스 실시와 애인을



군에 보낸 여성을 위한 상품코너인 '군인사랑'을 운영할 계획이다.

샵린나이측은 샵린나이는 독립법인 분사를 통해 온라인 종합 쇼핑몰 업체의 형태를 갖추고, 여성들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가스보일러 시험·효율기준 유럽규격화될 듯 6개 제조사간 '시험기준·고효율 개선' 워크숍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1월 14~15일까지 대전의 한화콘도에서 가정용 가스보일러 시험기준 정립 및 고효율제도 개선방안 워크숍'을 마련, 가정용 가스보일러 시험기준의 정립과 시험방법 표준화를 위한 워크숍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석유기기협회, 경동보일러 귀뚜라미보일러 대성셀텍 대우가스보일러 린나이코리아 롯데기공 등 6개 보일러 제조사의 전문가들은 국내 보일러 기술향상과 이를 통해 해외 진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내 보일러규격을 유럽의 EN규격으로 개정하는 것에 모두 찬성했으며, 특히 최근 중국도 EN규격으로 자국내 보일러기준 초안을 마련해둔 상태여서, 규격의 세계적 통일화에 대비해 국내 기준도 EN규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외에도 보일러 시험방법의 신뢰성을 확보해 보일러의 효율측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존 국내 규격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EN규격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다만 새 기준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개정을 원하는 업체와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업체로 의견이 나뉘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보일러제조사들이 보일러 시험기준과 효율측정을 유럽의 EN규격에 도입하는데 합의점이 도출됨에 따라 기술표준원과 협의해 국내 KS규격을

유럽규격에 맞게 재구성할 예정이며, 국내의 보일러 효율시험방법인 KS B 8109와 EN483이 상이한 것이 국내 효율기준의 문제점이라며 기준온도, 압력, 발열량, 전부하, 부분부하 효율시험 등 통합된 시험기준과 국제화 규격에 일치하는 시험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도에 맞춰 내구성 및 안전성이 고려되지 않은 고효율마크를 획득하기 위해 국내 보일러 제조사가 효율증대형 보일러 개발에 나서고 있다며, 현행 콘덴싱과 일반으로 이원화된 고효율기준도 개선해 사실상 콘덴싱보일러만 고효율인증대상이 되도록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 동계대비 "11월가스안전총점검의날" 행사 가스안전공, 전국민의 자율가스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가스안전공사는 11월 4일 가스사용량이 많아지는 겨울철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함께 전국적으로 '11월 가스안전 총 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전국민의 자율가스안전의식 확산을 목적으로 매달 실시하는 "가스안전 총점검의 날" 행사를 가스사용량이 증가하는 11월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거리캠페인 및 결의대회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됐다.

겨울철을 맞아 주로 발생하는 가정내 주요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사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행사를 펼쳐졌으며, 공동주택 가스보일러 점검, 가스안전 거리캠페인, 퓨즈콕 무료보급 행사, 가스공급시설 점검등 68회의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하게 열렸다.

본사에서는 경기서부지사와 합동으로 이날 10시부터 경기도 부천시 송내역 북부광장에서 공사 임직원 및 부천시 관계공무원, 가스공급자, 시민단체 등이 약 70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가스안전 요령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가스 안전 거리캠페인을 펼쳤다.

거리캠페인 후에는 인근의 공동주택(아파트)을 방문 공동주택의 가스시설 및 노후보일러에 대한 안전점검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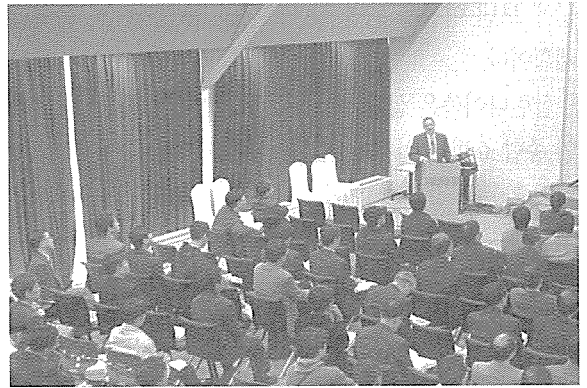
공사는 이번 동절기에 꾸준한 홍보활동과 시민의식 계도를 통해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계획이다.

## 제17회 신·재생에너지 워크숍 개최

### 2005 한국 신·재생에너지학회 추계학술대회도 개최

지난 11월 11일 서울대학교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과 한국 신·재생에너지학회(회장 이장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7회 신·재생에너지 워크숍 및 2005 한국 신·재생에너지학회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의 산·학·연 각계에서 연구중사자, 대학교수, 학생, 산업계 대표, 지자체 공무원 등이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성과 및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행사는 신·재생에너지분야별 연구개발성과 및 학술논문 발표, 해외전문가 초청강연, 전시회 등 다양한 내용으로 꾸러졌으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 유공자, 태양 에너지 건축설계공모전 입상자, 모형태양광자동차 경주대회 입상자, 태양광 아이디어 경진대회 입상자 등에 대한 포상을 시작으로, 전문가 초청강연, 기술개발성과 및 보급정책, 학술논문 발표 뿐만 아니라, 종합전시회가 이어졌으며, 종합 전시회에는 신·재생에너지 원별 주요품목 실물과 모형 태양광 자동차 경주대회 및 태양광 건축설계전 입선작, 태양광 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등이 전시되어 학생, 일반인과 신진 연구원의 이해를 돕는데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기후변화협약 및 고유가 상황 등 급변하는 세계 에너지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업체간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관련 산업발전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가스사고 전년대비 감소

### 고의사고 크게 증가...인명피해 40.4% 증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표한 '가스사고 원인분석 및

대책'에 따르면 올 3/4분기까지 가스관련 사건은 86건으로 전년 88건 보다 2.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고의사고는 37건, 단순누출 20건, 교통사고 15건, 과열사고 10건, 기타 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의사고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29건에서 올해 37건으로 무려 27.6%나 증가한 반면 단간누출은 34건에서 20건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어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그동안의 고의사고는 호스절단과 분리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었지만 올해는 5건으로 전년대비(12건)에서 감소했지만, 용기밸브 개방으로 인한 사고는 22건으로 지난해 8건에서 크게 증가했다. 이는 퓨즈콕 보급 확대로 인해 호스절단과 분리로 인한 사고는 크게 감소했지만 용기밸브의 경우 별다른 안정자치가 없어 사고가 증가했으며, 이에 공사측은 차단기능형 용기밸브 보급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가스사건을 형태별로 살펴보면 누출 33건, 폭발 23건, 화재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올 3/4분기 까지 발생한 사고의 인명피해는 부상자 포함 73명으로 지난해 52명보다 무려 40.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스사고는 감소했지만 인명피해는 크게 늘어난 이유는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고의 사고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 설명회’ 열려 지방이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화

산업자원부(장관 이회범)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은 공동으로 11월 22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 aT 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이전하게 될 176개 공공기관과 이전 기관의 신청사를 설계하게 될 건축 설계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청사 신축계획 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예산이 신청사 건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미리 건물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열렸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 1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총 건축공사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 설명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이전 청사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도입계획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건설교통부의 공공기관 이전 지원방안 설명,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 설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설명 순으로 진행됐으며, 에너지관리공단은 설명회를 통해 안내될 176개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이 연간 약 8,000toe(태양광설비용량규모로 24MW에 상당)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효과와 약 1,0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 이후 지역별 혁신도시가 선정되면 지역

혁신도시별로 지자체, 학계,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혁신도시 건설시 신·재생에너지의 무화 사업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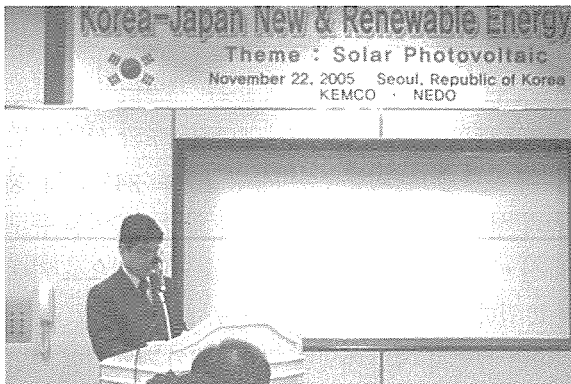
## 한·일 신재생에너지 공동세미나 열려

2006년 지역에너지사업 475억원 지원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은 일본 NEDO(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와 지난 11월 22일 서울 과총회관(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정보교류 및 양국 기업체 간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태양광 분야의 '한·일 신재생에너지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태양광 분야의 기술선도국 일본과 기술·정보교류를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는 양국간 기술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일본의 양광발전시스템 총 설치용량은 2004년까지 1,130MW이며 2010년 태양광발전시스템 도입목표를 4,820MW로 설정했으며, 전세계 태양전지 생산량은 약 1,200MW이며 이중 약 1/2인 600MW를 일본에서 공급하고 있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일본 NEDO에서 추진중인 태양광발전 기술개발 및 보급현황과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시스템 실증사업 등을 소개했으며,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의 태양광발전 기술개발 현황 및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 기술 등을 발표했다.

공단측은 태양광 분야의 공동세미나를 계기로 일본과의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해, 향후 수소·연료전지, 풍력 분야 세미나 개최 등 지속적으로 일본 NEDO와의 정보 및 기술교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원도지역 화목보일러 사용 급증

화목보일러는 화목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위에 특히 산이 많은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는 산속에 나뭇구름을 잔가지를 주워다가 보일러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같은 고유가상황에 적은비용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에 알맞은 제품으로 인기가 높다.

특히 강원도의 한 마을에서는 전체 70가구 중 10가구 정도가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사용도가 높다. 사용자들도 “장작을 손수 패야 하지만, 운동으로 생각하면서 하고 있다. 줄어든 연료비를 보면 힘이들지 않다”며 만족해 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춘천시는 산간에 어지럽게 널려있던 잔가지가 정리되어 수해와 산불피해 규모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화목보일러의 사용증가를 반기고 있으며, 산간농가를 대상으로 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도 “최근 입주하는 시골 농가와 전원주택의 경우 화목보일러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부분 화목보일러를 설치하고 있다. 이제 시대적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했다.